

주일 예배 11시

2017년 8월 2일 (첫째 주일)

*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

예배로의 부름

사회: 김성진 집사

*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(37장) 다 함께

*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

*교독문 48번 다 함께

*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에(293장) 다 함께

기도 하재혁 집사

찬송 예수 따라가며(449장) 다 함께

말씀 고명환 목사

-이기는 자(사무엘하 8장 1절 -14절)

*찬송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(249장) 다 함께

교회소식 담당자

기도 담당자

교회소식

-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. 꼭 참여해 주세요.

-오랫동안 출타하셨다 돌아오신 식구들 모두 반갑습니다.

-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

금주 읽을 성경:요한복음

- 기도해 주세요-
- 1.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
- 2.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
- 3.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
- 5.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

-8월 주일 예배 순서 담당자- 사회: 김성진 집사 기도: 하재혁 집사(6일), 김영자 권사(13일), 김동진 형제(20일), 장연재 형제(27일)

모임시간 주일: 10시 50분, 수요일:오후 7시, 월-토 오전 5시 20분

순례자의 목상

예수님을 바라보자

프란시스 리틀리 하버갈

예수님을 바라봄으로

우리는 결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.

그리고 우리는 모든 갑옷들 위에 싸우는 방패로서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.

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

우리 마음속에 솟아올라 있는

구원의 표준이 되는 것이며,

그렇게 솟아올라 있으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시오.

예수님을 바라봄으로서

모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눈을 돌리시고

그렇게 될 때 우리는

비틀거릴 필요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

예수님을 바라봄으로서

놀랍게도 능력과 영광의 높이로 나아갈 수 있으며

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

예수님을 바라봄으로서

우리 왕이 가신 에머랄드 보좌를 향하여

우리 믿음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주님 당신을 신뢰함으로써

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

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솟아오르게 하옵시고

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게 하소서.

내 주님 안

김선순

“내게 줄로 채어준 구역은
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”(시16:6)

내 삶의 영역은

내 주님 안

내 삶의 영역은

내 주님 보좌 앞입니다.

고백하고 다시 생각해보아도
꼭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.

이곳에서는
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볼 수 있고
주님의 마음을 접할 수 있어
언제나 그리워 찾아가는 곳입니다.

이 땅의 남은 여정이
뿌옇게 보일지라도
개의치 않고
오늘 길을 가면서 웃을 수 있음은
내 삶의 영역이
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.

주님과 함께

이재연

정신없이 세상 속을 방황할 때
내게 남는 건
오직 허탈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.

이곳은 잠시 왔다 가는 곳임을...
진정한 내 집이 아니라고
날 깨우쳐 주신 주님.

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
당신과 함께일 때 느낄 수 있고
세상이 주는 두려움
주님이 내 친구 되실 때
이겨낼 수 있습니다.

“주님과 함께”라는 믿음 안에
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.
내 뜨거운 마음으로
주님을 찬양합니다.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
예수를 바라보자!” (히브리서 12장 2절)



PALOUSE KOREAN CHURCH



2017년 8월 6일(32주) 31권-32호

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
Pullman, WA 99163 Phone 978-807-4092

Website: pullmanpkc.org